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날씨; 오전엔 맑은 하늘을 보이다가 점점흐려지고 바람이 많이 불며 쌀쌀함,
저녁에 천둥번개 동반 한 비

아침은 밥이 아닌 빵으로 달라는 둘째동우의 요구에 따라 카스테라와 미숫가루, 우유로 간
선식을 만들어주고 '창의감성대회'(졸업사진 촬영)를 위해 올림픽공원가는 첫째 태우 점심용
돈을 식탁에 올려주고 출근을 한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찬 기온에 바람까지 더해져서 얇은 옷을 입고 나온 스스로를 원망하며
그동안 놓고 있던 출근길 목주기도를 시작했다.

1단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큰아들 안드레아를 위해 2단은 삼춘기가 시작되는 둘째아들
레오를 위해 3단은 고3수험생 조카 수방이를 위해 4단은 대학 입학 후 정신없이 보낼 조카
혜방이를 위해 마지막 5단은 스스로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다정다감한 내가 되어주길 바
라는 나를 위한 기도로~~

내일은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볼까 반성해본다.

올3월부터 10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 행정지원사를 하고 있는 교
무실 오전은 정신없이 바쁘다.

늘 챙기기 좋아라 하시는 문부장님은 오늘도 역시 방울토마토와 견과류를 가지고
오시며 오늘은 살 안찌는 걸로 가져오셨다고 한다.(그간 가져온 빵, 과자들로 다이
어트를 하는 중이라는 얘길 들으시고...ㅋㅋ)

오후 출장을 앞두고 더 바쁜신 교감님, 정신없이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계시는 교무부
장님, 연구부장님....이리저리 교무실 해결사 이 실장님..

어제 작업하던 현수막 시안 결재올리고 주문 넣고 행정실장의 지적으로 다시 품의 올리고
늘 같은 듯 새로운 일들로 하루하루가 후다닥 지나가 버리는 교무실하루다.

급식실을 나오며 잠깐 걷는 학교교정- 어제내린 비 때문인지 더욱 싱그럽고 초록빛을 띤
나무들이랑 풀들..그 순간 진짜 잠깐이었지만 평범하다면 평범한 일상 속 자연을 느끼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나 모르겠다.

3월부터 시작된 직장생활로 저녁시간이 너무 바빠졌다. 퇴근과 동시에 장봐서 저녁준비에
청소에 밀린 집안일에 처음에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짜증날 일이 많았는데 어느듯 적응이
되었는지 익숙해져 가고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식사시간 다른 식구들 두 번씩 상 차리
고 나만의 공간 헬스장에서의 운동으로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토요일 중고등부 성지순례건
으로 회장님의 긴긴 설명과 통보와 기타 얘기들로 샤워중에 까지 얘기를 듣고 있다.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듯하다.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저것 여러개를 하다보
니 짜증만 늘어가고 몸상태도 안 좋아지는 것 같다. 2012이맘때 먹었던 호르몬제를 이번에도
복용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건강에 좀 더 신경쓰고 지내야 할듯하다.

운동으로 신체건강 기도로 정신건강..

이렇게 바쁜하루가 지나가고 있다~~